

내수·수출 부진의 늪... 정부, 성장률 2.8%로 하향



심각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자본시장 비상점검회의'에서 유재훈 여택결제원 사장(왼쪽),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英·EU 교역 위축 불가피 구조조정 따른 실업도 약재 2%대 성장률 고착화 우려 정치권, 추경 편성 논의

한국경제 먹구름

하반기 진입을 앞둔 한국경제에 긴 먹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다. 조선과 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외 약재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마저 현실화됐다.

경제 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정부도 성장률 높이를 2%대로 낮췄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 빠진 모습이다.

◇ 브렉시트로 교역 위축 불가피=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지난해 이후 한국경제 부진의 단초를 제공했던 수출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 영국·EU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과 EU 지역 실물경기가 위축되면 대외 교역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 감소

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향후 1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5% 감소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기적으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체계와 세관 행정의 부재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과 영국, 한국과 EU 간 무역관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56억5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줄었다.

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1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다. 월간 수출액이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여기에 브렉시트로 인한 교역량 위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은 언제 회복될지 가능하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물 건나간 3% 성장~추경 규모가 관건=정부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국정감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3.1%보다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정부가 '3%대 성장'이라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오후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자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2.8%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경제는 2012년 2.3%, 2013년 2.9% 등으로 3%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하다가 2014년 3.3%로 반짝 3%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2.6%에서 이어 올해도 2%대 성장이 확실시되면서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약재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보강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조원대의 '슈퍼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편성 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주가 폭락에 시총 하룻새 47조원 증발

코스피 61.47P ↓ · 환율 29.7원 ↑ ...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금융시장 이번주 고비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른바 '브렉시트'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난 24일 국내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은 '검은 금요일'의 공포에 크게 휘청거렸다.

◇ 금융시장 충격 어디까지=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1.47포인트(3.09%) 떨어졌던 1,925.24로 마감해 2012년 5월 18일(62.78포인트)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증가가 달러당 1,179.9원으로 전일보다 29.7원 급등했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채권값 상승)하면서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제 관심은 브렉시트 투표의 후폭풍이 얼마나 지속하느냐로 쏠린다.

일단 내주 초 국내 금융시장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를 가늠하는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친 점을 감안하면 오는 27일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브렉시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등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금의 이탈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예상 밖 복병으로 하반기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반기 경제전망에는 부진한 내수 및 수출에 구조조정 여파까지 물려오면서 먹구름이 잔뜩 짙어졌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애초 예상보다 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또 내리는 등 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4일 국내 증시에서 하루 만에 47조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은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가 끝난 후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약해진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했다"고 국내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올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보다 더 낮추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걸림돌이다. 브렉시트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36조5000억원 규모의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70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10 16 19 34 45	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099,552,219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2,558,362	52
3 5개 숫자 일치	1,596,399	1,712
4 4개 숫자 일치	50,000	86,091
5 3개 숫자 일치	5,000	1,446,865

자동차·철강 반사이익... 유럽 여행객은 경비 절감

엔고로 일본에 가격 경쟁력 우위... 명품가격 하락 가능성

광주·전남 경제 영향은

브렉시트가 전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수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에서는 가격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영국 등 EU 시장에서는 일부 품목이 관세를 변화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고 현상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꼽힌다. 엔고로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생산기지를 두고 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기아차 등 한국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요타, 닛산 등 영국에 생산기지를 둔 일본차는 다른 유럽 국가에 수출할 때 관세를 부담해야 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기 때문이다.

동남아 등 해외에서 일본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철강업계 역시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파운드화와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 명품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 수입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환율 변동은 판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환율 변화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제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유로화 약세가 심해지고 아시아 통화화 강세를 보이자 같은 명품 제품이라도 유럽과 아시아 가격에 큰 차이가 생겼다. 이에 따라 명품 브랜드 사들의 경우 한국과 중국 등에서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을 20% 인하하기도 했다.

다만, 명품 가격 결정 요소 가운데 환율 변동 외 다른 변수가 많은데다 환율 급등이 곧바로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광주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통상 명품의 경우 수개월 이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에 아직은 환율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환율 급등으로 '싸졌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한다면 관련 상품의 판매

영국 브렉시트와 국내 산업에 영향

- 원화 가치 하락
- 글로벌 경기 침체
- 금융시장 위축

대외연관

- 대미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
- 한영 FTA 등 대책 마련 필요

대영무역

- 관용 물품과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전제품 판매량 등 전자업계 일부 분야에 미칠 영향 우려
- 영국으로 판매하는 유럽 생산 가전제품 등 별도 FTA 필요

전차업체

- 최근 성장세를 보던 유럽 자동차시장의 수요 감소 전망
- 환율 상승 시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수출 면에서 경쟁력 강해 (한국 수출 7억 달러, 유럽 판매액의 약 20% 차지)

완성차업체

-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계획 필요
- 단기 환율 변동성 관리 강화 및 수요산업과 철강업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철강업체

- 경기 침체 심화 우려
- 대외연관 변화에 따른 관련 대응책 마련

상사업체

- 항공사 운임의 주요 변수인 환율 변동 영향
- 유가 상승 시 항공료 부담에 따른 수익성 감소 우려

항공업체

-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제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건설·부동산

자료: 경제포럼

순향(순향) 사랑(愛)인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빨라질수록
새로운 것에 자꾸 사로잡히고
간편해진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먹거리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언제나 변함없는
순향이의 마음처럼
농민의 진심을 지켜갑니다

남원시